

□ 美·中 경제 마찰의 여파

1. 美·中 경제 마찰의 배경

○ (중국의 정치·경제적 급성장) 미국의 쌍둥이 적자, 對中 무역수지 적자폭 확대, 중국의 팍스 시니카(Pax Sinica) 움직임이 對 중국 경제압박의 주요 배경임

- (미국의 쌍둥이 적자) 미 정부의 재정수지 및 경상수지 적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나 미국 경제 및 세계 경제의 위협요소로 부상하고 있음

· 최악의 쌍둥이 적자: 미국의 2004년 GDP 대비 재정적자 비중은 4.9%, 경상수지 적자는 -6,659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음

< 미국의 쌍둥이 적자 추이 >

(단위 : 십억 달러)

	2000	2001	2002	2003	2004
재정적자 대 GDP 비중	1.3	-0.7	-4.0	-4.6	-4.9
경상수지 적자 대 GDP 비중	-413.4	-385.7	-473.9	-530.7	-665.9

자료 : U.S Department of Commerce, IMF.

- (對 중국 무역수지 적자 심화) 對中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2004년 말 기준 1,620억 달러를 기록하여 對中 무역수지 불균형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 미국의 對中 무역수지 적자 추이 >

(단위 : 억 달러)

	2000	2001	2002	2003	2004
중국	838	831	1,031	1,241	1,620

자료 : U.S Department of Commerce.

- (미국의 팍스 시니카 견제) 막강한 경제력을 가진 중국의 세력 확장을 억제하기 위한 정치적 견제 수단으로 對 中國 위안화 평가절상 압력을 행사하고 있음

· 27.5% 보복 관세: 미국은 중국의 팍스 시니카 움직임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이 6개월 내 위안화를 평가절상하지 않으면, 27.5%의 수입관세 부과라는 초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

2. 압박과 선택

- (위안화 평가절상) 미국과 세계은행(World Bank)은 시장가치를 하회하는 위안화 가치의 절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위안화 평가절상 불이행 시 모든 중국산 제품에 대해 수입 관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음
- (미국의 평가절상 압력) 중국의 지나친 무역수지 흑자로 인해 세계 경제의 불균형(Imbalance) 현상이 발생하였다고 지적하며, 미국과 세계은행은 위안화 평가절상을 요구하고 있음
 - 세계은행 권고: 세계은행은 대규모 외국 투기 자본 유입에 따른 경제 왜곡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현행 고정환율제에서 변동환율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 미국 쌍둥이 적자의 근본 원인 >

- ① 낮은 미국의 저축률: 낮은 저축률로 인한 해외순차입금액의 증가가 곧 미국의 쌍둥이 적자의 주 원인으로 지적됨(Ben S. Bernanke)
- ② 일본 및 기타 고소득 국가와의 불균형: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대비 가장 많은 경상수지 흑자(27%)를 기록한 국가는 일본으로서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개도국은 불과 9%에 불과한 실정. 따라서 미국의 일방적인 중국에 대한 무역보복은 논리적 근거를 상실하고 있다고 지적됨(Martin Wolf)

< 세계 경상수지 흑자 규모 >

(단위 : 미국 경상수지 적자 대비)

일본	EU 지역	아시아개도국	기타개도국	기타	기타 고소득국가
27%	8%	9%	10%	25%	21%

자료 : World Bank.

- (중국의 수출 관세 부과) 미국의 對中 견제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은 자국산 제품에 대한 수출 관세라는 정치적 초강경수를 들 가능성도 존재함
- (WTO 규칙에 적합) 중국의 자국산 제품에 대한 수출 관세부과는 현재 WTO 규칙에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 (미국의 수입관세) 180일 동안 위안화의 재평가 작업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모든 중국 제품에 대해 27.5%의 관세를 부과하는 'Senate 295 법안'을 2005년 2월 美 의회가 통과시켜 중국을 보다 더 압박하고 있음
- (위안화의 27.5% 평가절하) 27.5%의 관세 수치의 배경은 위안화가 시장 가치보다 평균 27.5% 정도 평가 절하되어 있다는 근거에서 나왔음
- (정부 보조금 형태) 미국은 중국 정부의 위안화 저평가를 중국 정부의 의도된 보조금 형태라고 주장하면서 이의 시정을 요구하고 있음
- (WTO 조항 위반) 그러나 미국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이라는 이유를 들어 일방적으로 수입 관세를 부과할 경우 이는 WTO 규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됨

3. 시나리오별 경제 파급 효과

- (평가절상案 수용) 변동환율제의 채택으로 위안화의 27.5% 평가절상이 가시화될 시, 중국 외환보유고의 1,230억 달러 가치 손실과 27.5%의 수출 감소가 예상되어 중국 경제 및 세계 경제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음
- (파급 효과) 평가절상으로 인해 외환보유고의 가치 손실과 도시와 농촌간 소득격차 심화 등의 악영향을 줄 수 있으며, 10% 이상의 평가절상은 중국 경제에 손실을 가져올 전망이다
 - 외환보유고 가치 하락: 위안화가 절상될 경우 외환보유고 가치 손실이 예상되며 달러화 자산이 70%이상 시 손실은 더 커질 전망이다
 - 거시경제변수 악화: 5% 위안화 가치 상승은 5% 정도의 중국 수출 감소, 0.5%p 성장률 감소, 50만 개 일자리 감소 등의 逆효과를 가져올 전망이다
 - 소득 불균형: 위안화 평가절상은 중국내 농산물 가격 하락을 가져와 도시와 농촌간의 소득 불균형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음
 - 10% 미만 평가절상: 농촌에서 도시로 유입되는 노동 인력 수용을 위해 연간 2,000만~2,500만의 일자리 창출(8% 이상의 경제성장률 필요)이 요구되기 때문에, 10% 미만의 위안화 평가절상이 필요함

< 중국 경제 파급 효과 >

(단위 : 억 달러)

	15% 절상	27.5% 절상	40% 절상
외환보유고	670억 달러(↓)	1,230억 달러(↓)	1,790억 달러(↓)
수출	≤15%(↓)	≤27.5%(↓)	≤40%(↓)
경제성장률	≤1.5%p(↓)	≤2.75%p(↓)	≤4.0%p(↓)
고용창출	≤150만(↓)	≤275만(↓)	≤405만(↓)

주 : (1) 2004년 말 기준 6,400억 달러의 외환보유고 중 70%가 달러화 자산이라고 가정
 (2) 수출, 성장률, 고용 파급효과는 Danske Bank의 추정치에 따라 再계산됨.

- (자발적 수출 관세案 제시) 위안화의 평가절상으로 인한 외환보유고 가치 하락, 투기성 외국 자본 유입으로 인한 경기 과열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수출 관세案을 제시할 수 있음
- (파급 효과) 수출 관세 부과는 외환보유고 가치 보존, 투기성 자본 유입 감소, 정부 수입 증가라는 긍정적 효과와, 수출, 경제성장률 등의 거시경제변수 악화라는 부정적 영향을 동시에 가져올 전망이다
 - 외환보유고 가치 보존: 중국 자체의 수출 관세 부과는 외환보유고 가치 하락에 영향이 없음
 - 투기성 자본 유입 감소: 중국이 위안화 평가절상보다 수출 관세를 부과한 다고 가정할 시, 중국 거시경제변수 관리를 헤치고 있는 투기성 자본(Hot Money)의 유입을 제거할 수 있음
 - 정부 수입 증가: 1% 수출관세 부과는 약 60억~84억 달러의 중국 정부 수입 증대 효과가 있음
 - 거시경제변수 악화: 수출 관세 부과는 중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 약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수출 감소가 발생할 전망이며, 이에 따라 경제성장률 및 고용 창출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전망이다
 - 3% 수출 관세 부과: 중국내 고용 창출이라는 정치적 사안, 외환보유액 가치 하락 방지, 정부 수입 증대 등의 효과를 고려하면 3%대의 수출 관세 부과가 최선의 선택일 수 있음

< 중국 경제 파급 효과 >

(단위 : 억 달러)

	1% 수출관세	3% 수출관세	5% 수출관세
외환보유고	無	無	無
정부 수입	60~84	180~252	300~420
수출	3%~5%(↓)	9%~15%(↓)	15%~25%(↓)
경제성장률	0.3%p~0.5%p(↓)	0.9%p~1.5%p(↓)	1.5%p~2.5%p(↓)
고용창출	30만~50만(↓)	90만~150만(↓)	150만~250만(↓)

주 : 1% 수출관세는 3%~5%의 화폐 평가절상 효과를 가진다는 Lau & Stiglitz 가정을 따름.

○ (미국 수입 관세案 수용) 중국산 제품에 대한 27.5%의 수입 관세는 외환 보유고 가치 하락은 없으나, 對美 수출의 감소가 예상됨

- (외환보유고 가치 하락) 수출 관세 효과와 같이 외환보유고 가치 하락은 없음

- (중국의 對美 수출 감소) 수입 관세로 인해 對美 수출은 감소할 전망이다

- (미 정부 수입 증가) 수입 관세로 인해 美 정부의 수입은 증가할 전망(2004년 對中 수입액을 약 1,250억 달러를 가정할 시 27.5%의 수입 관세 부과는 344억 달러 정부 수입 증대 효과 기대)

※ 수입 관세가 위안화 평가절상과 동일한 효과를 가진다면, 27.5% 수입 관세 부과는 위안화의 27.5%의 평가절상과 동일하여 3%대의 수출 관세보다 중국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음

○ (미국에 대한 파급 효과) 위안화 평가절상은 對中 수입 감소와 아시아 국가 화폐들의 평가절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미국의 무역 수지 적자폭은 줄어들 전망이나 물가 상승 압력으로 미국의 금리 인상 가속화가 예상됨

- (무역 수지 적자 감소) 위안화 평가절상 혹은 수출·입 관세 부과는 미국의 對中 무역 수지 적자폭을 감소시킬 수 있으나, 미국의 중국의 지나친 수입의 존도로 인해 적자 해소폭은 그리 크지 않을 전망이다(Lau & Stiglitz 2005)

- (美 금리 인상 가속화 예상) 위안화 평가절상 혹은 수출·입 관세 부과는 미국 물가 상승을 가져와 미국의 금리 인상을 보다 더 가속화 시킬 수 있어 쌍둥이 적자를 상대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음

4. 시사점 및 대응방향

- (시사점) 위안화 평가절상은 단기적으로 對中 수출 증가와 중장기적으로 중국의 성장률 하락으로 대중 수출 감소, 수출 관세는 중국내 한국 기업의 수출 경쟁력 약화, 수입 관세는 상대적으로 한국의 對美 수출 가격 경쟁력 향상을 가져올 전망이다
 - (위안화 평가절상) 위안화 평가절상은 단기적으로 수출 가격의 경쟁력 제고로 對中 수출 증가의 긍정적 효과가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중국의 경제성장률 하락으로 對中 수출이 감소와 국내 물가 상승이 우려됨
 - (중국의 수출 관세) 중국의 수출 관세 부과는 중국내 한국 기업의 수출 경쟁력 약화를 가져와 기업 이익 둔화, 국내 물가 상승을 가져올 전망이다
 - (미국의 수입 관세) 미국의 중국산 수입 관세 부과는 상대적으로 한국의 수출 가격 경쟁력 강화를 가져와 對美 수출 증대 효과가 기대됨
- (대응 방안) 위안화 평가절상, 미국의 수입 관세 부과, 중국의 수출 관세 부가가 2005년內에 가시화될 전망임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
 - (수출 다변화 정책) 중장기적으로 중국의 경제성장률 하락이 예상됨으로 수출 다변화 정책 마련이 요구됨
 - (물가 상승에 대비책) 위안화 평가절상 혹은 수출 관세 부과案 시행은 對中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물가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수입 다변화와 같은 물가 상승 억제책을 고려해야 할 것임
 - (對美 수출 기회 적극 활용) 중국의 對美 수출 경쟁력 약화는 한국의 對美 수출 확대의 기회이므로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할 것임

윤여필 연구위원 (3669-4181)